

중세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에 관한 일고찰

안 지 영*

目次

1. 들어가며
2. 순접 조건표현의 선행연구 검토
3. 虎明狂言의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 3.1 가정 조건표현
 - 3.2 확정 조건표현
 - 3.3 항상 조건표현
4. 天草平家の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 4.1 가정 조건표현
 - 4.2 확정 조건표현
 - 4.3 항상 조건표현
5.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の 비교
6. 나오며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중세 구두어 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조건표현 중 순접 조건표현에 관한 일고찰이다. 본고의 목적은 중세 구두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순접 조건표현의 사용상태를 분석·고찰하여 구두어 자료 속의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고바야시 겐지(小林賢次, 1996)에 의하면, 조건표현이란 접속 표현 중 「テ」「ツツ」등에 의한 사태(事態)의 단순한 시간적 연속 혹은 병행적인 표현으로 파악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접속되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건표현은 순접 조건표현과 역접 조건표현으로 나뉘는데, 그 중 순접 조건표현은 고대어에서 근대어로의 변화 속에서 그 체계에 극히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가정의 접속조사 「ハ」가 고대어에서는 동사의 미연형(未然形)에 접속하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사의 이연형(已然形)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일본어학

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이 시기는 일본어의 역사상 고대어에서 근대어로 이행되어가는 시기로 당시의 자료 검토는 근대어로의 변화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주된 고찰 대상은 중세 후반부터 근세 초기에 서사된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¹⁾』와 『아마쿠사반 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²⁾』이다. 이 두 자료는 당시의 구두어를 반영한 문헌자료로, 구두어 속의 조건표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조건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 용례의 언급 내지는 약간의 기술 정도의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을 뿐 구두어 자료 속의 전체적인 조건표현의 경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에 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의 대표적인 구두어 자료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두 자료 속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순접 조건표현의 선행연구 검토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을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분류 체계를 검토한 후, 그 분류 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조건표현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로드리게스와 후지타니 나리아키라(富士谷成章)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조건표현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근대 이후의 주요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건표현의 분류체계 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마쓰시타 다이자부로(松下大三郎, 1928)와 사카쿠라 아쓰요시(阪倉篤義, 1958), 그리고 고바야시 겐지(小林賢次, 1996)를 들 수 있는데, 각각의 분류를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건 표현에는 형태상으로 「已然形+バ」의 확정조건의 형식을 나타내면서 의미상으로는 가정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이것에 관하여 마쓰시타·사카쿠라·고바야시는 각각 「현연가정(現然假定)」·「항상확정(恒常確定)」·「항상조건(恒常條件)」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의미상 구별을 통해 이것을 가정조건으로 분류시켰으나, 사카쿠라는 이

1)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 이하 虎明狂言이라 약칭한다.』는 에도(江戸)시대 초기(1642) 오쿠라류(大藏流)의 교겐시(狂言師) 오쿠라도라이키라(大藏虎明)에 의해 서사된 교겐 대본이다.

2) 『아마쿠사반 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 이하 天草平家라 약칭한다.』는 1592년 당시 크리스토프 포교를 위해 일본에 온 예수회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본어 습득을 목적으로 아마쿠사가쿠린(天草學林)에서 출판된 구두어 자료이다.

를 부정, 확정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바야시는 「已然形+バ」의 확정조건의 형태를 취하면서 가정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느 범주 안에도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양자 모두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서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바야시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항상 조건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나의 새로운 체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결과 이미 새로운 체계로 독립된 성분이 인정되는 요소를 무시한 채, 기존의 사카쿠라와 마쓰시타의 연구와 같이 이를 형태만을 중심으로 가정조건 혹은 확정조건이라는 범위 안에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정 조건표현의 경우, 마쓰시타와 고바야시는 공통적으로 가정조건을 각각 완료와 비완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카쿠라의 경우, 가정 조건표현을 우연 가정조건, 필연 가정조건, 항상 가정조건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상술한 것과 같이 형태상으로 「已然形+バ」의 확정조건 형식이나 의미상으로는 가정 조건을 나타내는 항상 조건표현을 가정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가정 조건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인 「ナラ」와 「タラ」의 성립 배경과 그 변화 과정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마쓰시타의 약음설(約音説)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ナラ」와 「タラ」의 성립에 관하여 「ナラ」는 「ナレバ→ナリヤ→ナラ」로, 「タラ」는 「タレバ→タリヤ→タラ」로의 약음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タレバ」가 무로마치시대에 「タラバ」와 같은 가정조건을 일반적으로 나타냈었다는 사실과, 근대어의 가정 조건표현으로 「未然形+バ」가 쇠퇴함에 따라 「ナラ」와 「タラ」만이 미연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천 경향에 위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하치야(蜂谷, 1977)의 생략형(省略形)에 관한 설이다. 다시 말해 「ナラバ」와 「タ라バ」는 조동사 「ナリ」와 「タリ」의 미연형에 접속된 조사 「バ」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하치야는 교겐 대본에서 「ナレバ」와 「タ레バ」의 가정조건의 예가 극히 드물며, 하야시모노(囃子物)의 「ナラ」의 예에서 「バ」가 생략되어 사용된 점을 들어 생략형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술한 약음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설은 모두 그 변화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ナ라바」와 「ナ레바」가 모두 단정의 조동사 「ナリ」에서 발생하여 「ナラ」로, 「타라바」와 「타레바」가 완료의 조동사 「タリ」에서 발생하여 「타라」로 변화된 사실에 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의 변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고찰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나, 기본적으로 「나라바」와 「나레바」가 「나라」로, 「타라바」와 「타레바」가 「타라」로 변화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정 조건표현을 완료와 비완료로 구분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확정 조건표현의 경우 마쓰시타와 고바야시는 필연조건과 우연조건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마쓰시타는 우연조건을 더욱 세분화 하여 단순(單純), 반예기(反豫期), 대

등(對等)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카쿠라의 경우는 가정 조건표현과 마찬가지로 확정 조건표현을 우연 확정조건, 필연 확정조건, 항상 확정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순접 조건표현의 제 분류 중 고바야시의 분류 체계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바야시의 분류 체계에 입각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이하, 본고에서 분류 대상이 되는 고바야시의 분류 체계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조건(假定條件) - 완료 - 花咲かば見む。

비완료 - 君行かば我も共に行かむ。

항상조건(恒常條件) - 酒を飲めば酔ふ。

확정조건(確定條件) - 필연조건(必然條件) - 今日は雨降れば客無し。

우연조건(偶然條件) - 顧みすれば月傾きぬ。

이 분류 기준을 통해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용례문을 추출한 후, 두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에 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3. 虎明狂言의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虎明狂言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을 분류해 본 결과, 순접조건을 나타내는 조건표현은 총 1,773용례이다. 전체 용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 조건표현이 634용례로 35.7%이며, 확정 조건표현은 430용례로 24.2%이고, 항상 조건표현은 709용례로 40.1%로, 전체적으로 항상 조건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 <표1>에 근거하여 각 표현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1> 虎明狂言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 조건 표현 | 가정조건 | | 확정조건 | | 항상 조건 |
|----------|---------------|---------------|---------------|--------------|---------------|
| | 완료 | 비완료 | 필연 조건 | 우연 조건 | |
| 계 | 217 (12.2) | 417 (23.5) | 300 (16.9) | 130 (7.3) | 709 (40.1) |

숫자는 용례수를, () 안은 %를 나타낸다. (이하 동)

3.1 가정 조건표현

虎明狂言에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은 총 634용례이다. 가정 조건표현은 크게 비완료와 완료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비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417용례이고 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217용례로, 비완료 가정이 약 1.9배가량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첫째, 비완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로는 「동사의 未然形 바」가 있는데, 이것은 총 227용례가 있다. 이것을 접속된 동사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살펴보면,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것은 「アラバ」로, 97용례(42.7%)이다. 해당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教え手)\なふ_vあらはやらふとおも(思)ふて、たつねたれは、よそへか(借)つていな(無)
 ひといふは (ひつき篲, 341:5)
- (2)(山賊)\よひ物のあらは、と(取)らうと存る (やせ松, 292:3)
- (이하, 예문의 하선은 필자에 의함)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총 77용례(33.9%)를 차지한 「四段動詞의 未然形 바」의 형태이다. 「ゴザル」에 접속된 형태인 「ゴザラバ」는 총 31용례(13.7%)의 비율로 나타나 그 다음으로 많은 용례이다. 소수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는 下二段에 접속된 것이 3용례(1.3%), サ変에 접속된 것이 3용례(1.3%), 「オジャラバ」가 4용례(1.8%), 부정 조동사인 「ズ」에 접속된 것이 12용례(5.3%)가 있었다. 이하, 주요 용례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3)(ちんば)\あれがよまば、身どももよみませう (竹の子, 86:10)
- (4)(つんば)\目にみ(見)えた事がござらは、某にまか(任)させられひ (きかず座頭 428:8)
- (5)(太郎冠者)\とおい(遠)への(乘)つておじやは、ゑあり(歩)くまひ時は、むちで打た_vきやらう
 ほどに (人馬, 224:1)

둘째, 단정의 조동사 「ナリ」+ 「バ」의 형태인 비완료의 가정조건의 표현 형식인 「ナラバ」는 총 190용례이다. 구체적으로 접속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언과 접속한 형태로, 특히 명사와 결합한 것이 총 82용례(4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언과 결합한 형태 중 형식 명사인 「モノ」, 「コト」, 「ホド」가 「ナラバ」에 접속된 「モノナラバ」, 「コトナラバ」, 「ホドナラバ」의 형식이 각각 2용례(1.1%), 18용례(9.5%), 7용례(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사에 접속된 것이 총 69용례(36.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수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는 형용사와 조사, 조동사로, 각각 1용례(0.5%), 4용례(2.1%), 7용례(3.7%)를 나타냈다. 특히 「ナラバ」의 경우, 접속사적 성격을 띠는 용법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것은 「ナラバ」가 점차적으로 접속사적

성격이 강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한 예라 생각된다. 해당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薑賣)\そちがしやうばい(商賣)人ならば、身どもはあきんど(商人)じや (酢はじかみ, 75:14)

(7)(鴛)\てまのいる事ならば、今日のむこ入はなるまひかとぞんじたれば、おもひの外やすひ事じや
(鶏鴛, 334:9)

(8)(主)\これほどならば、人やと(雇)ひしてなりとも、道具をもたせてこうものを
(どんごむさう, 76:6)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タリ」+ 「バ」의 형태인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 「タラバ」의 용례는 총 217용례로, 「ナラバ」에 비해 1.2%정도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 경우, 이전까지 완료를 나타내던 조동사 「ツ, ス, タリ, リ」등의 완료 조동사들과 접속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이상의 조동사들이 모두 「タリ」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사적 변천의 양상이 虎明狂言의 용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조건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大名)\某が聲をきひたらは出まひ程に、つくりごえをいたひてよび出そう (じせんせき, 226:7)

(10)(伯母)\今からまいつたらば、さけ(酒)はのませませう程に、こら(壺)へてくだされひ
(おはか酒, 279:2)

3.2 확정 조건표현

확정 조건표현은 크게 필연 확정조건, 우연 확정조건으로 나뉜다. 虎明狂言에 나타난 확정 조건표현은 총 430용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건구가 원인·이유를 나타내고 전건과 후건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필연 확정 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다른 조건표현에 비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300용례로 확정조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연 확정 조건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접속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ナレバ」표현이 116용례(38.6%)를 나타내어 그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92용례(30.7%)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에 접속된 경우이다. 또한 「タレバ」의 경우는 총 41용례(13.7%)를 차지하며, 조동사의 경우는 총 45용례(1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는 총 6용례(2.0%)에 불과해 소수의 사용빈도를 보였다.

우연 확정 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성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총 130용례로 확정 조건표현 전체의 30%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하

해당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1)(主)\見れは村鳥があらすと見えた (なるこ, 133:12)

(12)(男)\人かと思ふたれは人形をつくつておいて、よひきも(肝)をつぶ(潰)ひた(うり盗人, 40:2)

3.3 항상 조건표현

다음으로 항상 조건표현을 살펴보면, 총 709용례(40.1%)로 전체 순접 조건표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접속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동사의 경우 524용례(73.9%)를 나타내어 그 빈도수가 가장 높고, 「ナレバ」의 경우가 248례(3.4%), 「タレバ」의 경우가 118용례(16.6%)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이지만 조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33용례(4.7%)와 10용례(1.4%)로 나타나 있다. 이하 항상 조건표현의 각각의 용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教え手)\そのやうにさへすれは、むこ殿はしつけ人じやといふてほ(賞)めうほどに、そのやうにあそばせ (音曲賀, 338:1)

(14)(太郎冠者)\中々命さへあれは又めぐりあふ事もあらふが、ひごろひとつにゐて、今わかるゝに依て、一しほ(入)なごりおしひ (武悪, 310:8)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대부분이 용례문(13)과 같이 후건이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ホドニ」나 「ニヨッテ」와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용례문(14)와 같이 추량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용례문(14)와 같이 추량표현을 동반한 항상 조건표현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과도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4. 天草平家の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은 총 883용례이다. 가정 조건표현이 148용례로 16.8%이며, 확정 조건표현은 699용례로 79.1%이고, 항상 조건표현은 36용례로 4.1%로, 전체적으로 확정 조건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 <표2>에 근거하여 각각의 형식에 따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표2> 天草平家に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 조건 표현 | 가정조건 | | 확정조건 | | 항상 조건 | |
|----------|----------------|-------------|---------------|---------------|---------------|-------------|
| | 완료 | 비완료 | 필연 조건 | 우연 조건 | | |
| 계 | 883 (100.0) | 20 (2.3) | 128 (14.5) | 304 (34.4) | 395 (44.7) | 36 (4.1) |

4.1 가정 조건표현

天草平家の 가정 조건표현은 총 148용례이다. 비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動詞의 未然形+バ」의 형태는 총 67용례로, 四段動詞가 21용례(3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조동사로 총 18용례(26.9%)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례가 모두 「レバ」, 「ラレバ」의 형태이며, 모두 존경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은 「ゴザラバ」가 총 17용례(25.4%)이며, 소수의 용례로 「下二段」과 「ナ変」접속이 각각 6용례(8.9%), 5용례(7.5%)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동시대 교겐자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未然形+バ」형식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5) イツクへ行カバ、ノガレウカト思ウタレバ、ヒカエテ敵ヲ待ツトコロニ、猪俣ヨイ敵ト目ヲカケテ、鞭ヲアケ馳セ寄セ、押シ並ベテ組ンデ落ちタ (卷四, 8:273)
- (16) 日ゴロは何ゴトモゴザラバ、眞先ヲカケテ討死ヲイタサウト存ジタニ、今度ハ何ト思ワレテゴザルカ (卷二, 二:118)
- (17) タトイ舞ヲゴ覽ジ、ウタイヲ聞キ召サレズトモ、御對面バカリアツテ歸サセラレバ、有難イヲ情ケテゴザラウズ (卷二, 一:95)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ナリ」+ 「バ」의 형태인 「ナ라바」는 총 61용례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사에 접속된 형식으로, 총 31용례(50.8%)를 나타내고 있다. 조동사와 접속된 표현은 총 27용례(44.3%)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동사의 경우 「ルルナ라바」, 「マラスルナ라바」외에 부정추량의 조동사 「マイ」와 추량의 조동사 「ウ」에 접속된 형태가 소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와 접속된 경우도 나타나는데, 특히 문상당어구(文相當語句)에 해당하는 「ゾナ라바」가 3용례(4.9%)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단정의 조동사 「タリ」+ 「バ」의 형태인 완료를 나타내는 가정 조건표현인 「たら바」의 경우, 총 20용례로 가정 조건표현의 2.3%로 나타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하 해당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8)ソレニモ御心ノユカザ라우時コソ、御様ヲモ変エサセラレテ、ノチノ世ヲモトムライ參ラセラ
 ルルナラバ、ヨウゴザ라우 (卷四, 十:282)
- (19)コレヲ召シ具シテ院ノ御所ヲ守護シ參ラスルゾナラバ、サ스가モッテノホカノ御大事 デゴ
 ザ라우ズ (卷一, 六:47)

4.2 확정 조건표현

전체 순접 조건표현 중 확정 조건표현이 天草平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99용례 (7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필연 확정조건이 304용례, 우연 확정 조건이 395용례이다. 그 중 특히 용례문(20)과 같은 「タレバ」가 절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필연 확정조건의 대표적인 용법과 우연 확정조건의 대표적인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備前ノ國ノ三石ノ宿ニ泊マツタレバ、兼康ガ親シイ者ドモ酒ヲ持タセテ來テソノ夜夜モスカ
 라酒盛リヲシテ (卷三, 十二:211)
- (21)六條河原テ命ヲ惜シマズ、振舞ウタソノ奉公ヲ思エバ、ワ殿マデモオロドカニ思ハヌ
 (卷四, 二:230)

4.3 항상 조건표현

天草平가에 나타난 항상 조건의 용례문은 36용례(4.1%)이다 항상 조건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더욱이 추출된 용례들 중에도 확정 조건표현과의 경계 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항상 조건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思ワシモノヲ見ウトスレバ、父ノ命ヲソムクニ似、父ノ命ヲソムクマジトスレバ、深ウ
 契ツタ女ノ心ヲ破라우ズ (卷四, 13:307)
- (23)モシ頼政ヂャワ、光基ナドト申ス源氏ドモニアザムカレタレバコソマコトニー門ノ羞恥 デモ
 고히라우즈 (卷一, 2:16)

용례문(22)의 경우 후건이 추량표현으로 나타나는 용례로, 전술한 虎明狂言의 용례문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항상 조건표현이 가정 조건표현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표현이 天草平家에서는 극히 소수의 용례만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미분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용례문 (23)과 같이 「モシ」를 동반하여 항상 조건을 표

현하는 용례문들도 보인다.

5.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の 비교

虎明狂言과 天草平家에서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던 가정 조건표현과 항상 조건표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두 자료에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의 양상을 나타내면 아래 <표3>과 같다. 이하에서 그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3>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の 가정 조건표현의 양상

| 자료(資料) 어례(語例) | 虎明狂言 | 天草平家 |
|------------------|-------------|-------------|
| 「未然形+バ」 | 227 (35.8) | 67 (45.3) |
| 「ナラバ」 | 190 (30.0) | 61 (41.2) |
| 「タラバ」 | 217 (34.2) | 20 (13.5) |
| 합계 | 634 (100.0) | 148 (100.0) |

첫 번째로 虎明狂言의 가정 조건표현의 용례수를 살펴보면, 「未然形+バ」와 「ナラバ」, 「タラバ」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未然形+バ」의 용례가 줄어들게 되고 「ナラバ」, 「タラバ」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天草平家の 경우, 「タラバ」의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天草平家が 문어자료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구두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그 구체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제 저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の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虎明狂言에서는 709용례로 항상 조건표현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天草平家에서는 단지 36용례가 보인다. 虎明狂言과 天草平家の 서사 시기와 일본어 조건 표현사의 사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天草平家에도 항상 조건표현이 두드러지는 등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虎明狂言에 비해 天草平家에서는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가 극히 소수로 나타나 있었으며 또한 아직까지 그 표현형식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6. 나오며

지금까지 虎明狂言과 天草平家에 나타난 조건표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虎明狂言의 가정 조건표현의 경우, 특히 비완료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 비완료의 경우 「動詞의 未然形+バ」와 「ナラバ」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았으며, 완료는 「タラ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완료 용법이 많은 것은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 가능하게 하는 단정의 조동사 「ナリ」에 조사 「バ」가 접속된 표현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虎明狂言의 경우 다른 조건표현보다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가 특히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인다. 추출된 예문들은 대부분 후건이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추량표현을 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항상 조건표현이 추량의 표현을 동반하면서 가정 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虎明狂言과 天草平家와의 가정조건의 경우, 두 자료 모두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라는 특성상 공통적으로 가정 조건표현의 형식인 「未然形+バ」, 「ナラバ」, 「タラバ」에서도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과도기적 양상이란 이전 「未然形+バ」로 대부분의 가정조건이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가정조건의 형식이 점차 세분화 되어 「ナラバ」, 「タラ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 빈도수가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ナラバ」, 「タラバ」의 형식이 세분화되어 정착된 것이 아니라 점차 분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天草平家の 경우, 「タラバ」의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있었다.

넷째,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虎明狂言에서는 항상 조건표현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天草平家에서는 항상 조건표현과 확정 조건표현과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동일한 구두어 자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 예상 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 본 두 구두어 자료 속의 순접 조건표현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구두어 자료 속에서도 이러한 양상들이 보이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구두어 자료를 분석하여 조건표현 전체에 관하여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 池田廣司・北原保雄(1972-1983), 『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篇 上・中・下』, 表現社.
- 江口正弘(1986), 『天草版平家物語対照本文及び索引 本文編』, 明治書院
- _____(1994), 『天草版平家物語の語彙と語法』, 笠間書院 pp.288~317
- 小林賢次(1996), 『日本語条件表現史の研究』, ひつじ書房 pp.1~35
- _____(外編)(1997), 『日本語学キーワード事典』, 朝倉書店 pp.221 ~222
- _____(2000), 『狂言台本を主資料とする中世語彙法の研究』, 勉誠出版 pp.1~18
- 阪倉篤義(1958), 「条件表現の変遷」, 『國語學』 33輯, 國語學會 pp.105~115
- 蜂谷清人(1977), 『狂言台本の國語學的研究』, 笠間書院 pp.3~24
- 松下大三郎(1928), 『改善標準日本文法』, 勉誠社 p.544

K C I

要 旨

本稿は、江戸初期に大藏流の狂言師である大藏虎明によって書かれた『大藏虎明本狂言集』と同時代に書かれた口語資料の『天草版平家物語』を中心にして、そこに現れた順接条件表現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文語資料に記録されている文法事項は、口語資料のそれに比べて、規範性が強く、定型化した表現として現れるという限界性を持っている。従って、本稿では既存の文語資料の限界性を認識し、定型化した条件表現ではなく、実際の生活で使用された口語の中に現れた条件表現の独特な特徴を把握することをその目的とし、同時代の口語資料との比較を通して順接条件表現の諸様相を比較及び分析した。

その結果、『大藏虎明本狂言集』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その臺本の時期的な性格上、それぞれ近代語に分化、発展していく過渡期的な諸様相が現れていた。特に、恒常条件の場合、そのような傾向が目立ち、古代語から近代語へ移行していく過渡期的な性格が強くと現れていると言える。一方、『天草版平家物語』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大藏虎明本狂言集』と同時代の資料という点ではほぼ同じく過渡期的な性格が現れていたが、恒常条件に関しては『大藏虎明本狂言集』の結果とは全く違って、その出現率があまり高くなかった。そのため、このような傾向がこの資料だけの特徴であるかどうか、またこのような結果が出た原因はなぜかということを今後の課題にし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順接条件表現, 口語資料, 『大藏虎明本狂言集』, 『天草版平家物語』,
假定条件, 確定条件, 恒常条件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